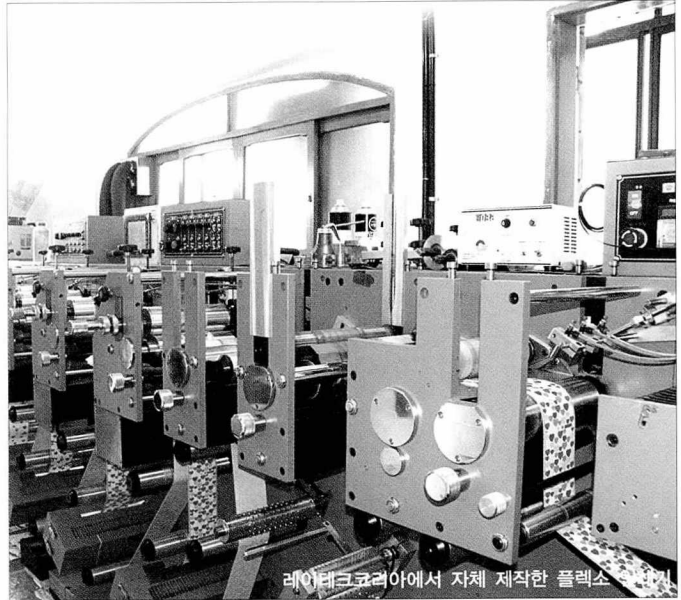


라벨인쇄 외길 어느 덧 30년



✦ 회사연혁

- 1977. 5 라벨 스티커 도매업 시작
- 1989. 5 건출지 라벨의 고급 상품화 300라벨 출시
- 1992. 10 PC30기계 도입, 대량생산체제 구축
- 1995. 8 한국레이테크로 상호변경, 제9회 서울 국제 문구 전시회 참가
- 1998. 6 마켄디 기계 도입, 레이저 프린트라벨 출시, 레이테크 홈페이지 개설
- 2000. 1 (주)레이테크코리아로 상호 변경
- 2001. 2 주소용, 명함용, CD용 잉크젯 전용 프로그램인 라벨 디자이너 2.0 프로그램 출시
전산건출지(인덱스 라벨)출시
- 2000. 4 미니프린트 라벨 출시
- 2002. 7 고광택 A4 사진출력용지 출시, 고광택 A4 CD-R 용지 출시
- 2002. 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2004. 3 라벨전용 프로그램 라벨 디자이너 4.0 프로그램 출시
- 2005. 5 한글인터넷 주소 서비스 시작
- 2000. 7 고객 온라인 원격지원 서비스 시작
- 2006. 9 제15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 2006)가 참가

국내에서 플렉소 인쇄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 가운데 하나인 라벨은 건출지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건출지가 라벨인쇄를 가장 잘 대변하는 제품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주를 받아야 하는 오프셋 인쇄사와는 달리 라벨 제조업체는 제품을 직접 만들고,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만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라벨은 단순히 인쇄기술이 좋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남보다 먼저 신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건출지 도매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무려 2000여종이 넘는 다양한 제품을 직접 생산, 라벨 업계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회사가 있어 화제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레이테크코리아이다.

자체 제작한 플렉소 인쇄기로 제품 생산

서울시 중구 신당4동에 위치한 레이테크코리아(www.latech.co.kr). 회사를 설립한 임상용 대표(57)는 워래 양은 냄비와 플라스틱 용기 등 그릇 소매업을 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후배의 소개로 라벨업계와 인연을 맺었다. 현재 이곳에서는 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라벨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레이테크코리아를 그저 평범한 라벨제조 회사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가동중인 5대의 플렉소 인쇄기가 모두 자체 제작됐다는 사실. 기계를 만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이다. 그 사연이 흥미롭다. 당시 임 대표는 이태리제 수입 장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고물중에도 그런 고물이 없었다”는 것이 임 대표의 말이다. 우선 작동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프레임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렸다. 인쇄 품질 역시 기대에 한참 못미쳤다. 끊는 속을 참고 그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공장장과 함께 기계를 다 뜯어버렸다. 전화위복이라거나 할까. 수습 차례에 걸쳐 기계 내부를 분석하다보니 이 정도라면 직접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때마침 연말이라 자금의 여유도 있었고, 즉시 기계 제작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결국 지금의 인쇄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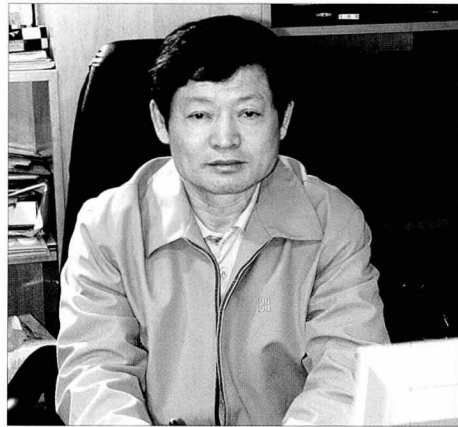
레이테크코리아가 제작한 플렉소 인쇄기는 업계에서도 그 품질이 뛰어나기로 소문이 나있다. 실제로 기계 제작을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도 임 대표는 절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기계를 만들지 않는다. 현재 두 대를 추가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자신이 사용할 물량이다. 기계 제조·판매까지 뛰어들 경우 영업망 구축 및 A/S 서비스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져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기계제조보다는 라벨 생산업체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싶다”는 것이 임 대표의 설명이다.

사용 간편한 펠트라벨로 올해 승부

레이테크코리아는 견출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프린트라벨, 제책라벨, 소음 방지라벨, 디스켓 라벨, 도서용 라벨, 전산라벨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제품군을 자랑한

차한잔

임상용 레이테크코리아 대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사명감 잊지 않아”

레이테크코리아에 대해 소개한다면.

1977년 범표라는 이름으로 국내 견출지 시장에 뛰어든 지 어느덧 30년이 됐다.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레이테크코리아는 견출지 생산에 전념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제품을 공급하고, 세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

현재는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린트 제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생활 가운데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각종 라벨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3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진심어린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끄럽지만 사실 사업을 하면서 후회를 한 적도 많았다. 주위에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렵게 제품을 출시하면 금방 모방해서 가격으로 치고 나오는 등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라벨에 대한 애착, 특히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자부심만은 항상 잃지 않았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격경쟁에 동참하기 보다는 품질을 앞세운 차별화 된 영업전략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쓸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태국 등 아시아 지역 몇 개 국가에 한해 수출이 소량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비중을 점차 높여갈 것이다.



레이테크코리아가 지난해 초 선보인 디자인의 펠트라벨들

다. 색상까지 고려하면 무려 2000여종의 품목을 생산한다. 특히 견출지와 프린트라벨은 업계 최고의 품질력을 당당히 인정 받고 있다.

문구도매점이 주요 영업 타깃인 레이테크코리아는 2002년 8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쇼핑몰은 수량에 상관없이 주문한 바로 다음 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빠른 서비스가 장점. 임 대표는 “생산 품목이 많다 보니 점주들이 사용방법을 잘 몰라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직접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적합한 라벨을 쉽게 찾아 즉시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올해 펠트라벨을 앞세워 라벨 전문업체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미 그 시장 가능성은 지난해 9월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KIPES(국제인쇄산업 전시회)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펠트라벨 샘플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진열해 놓은 레이테크코리아 전시 부스는 KIPES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차지한 곳 가운데 하나였다.

‘내가 고민한 만큼 소비자가 편리해진다’고 강조하는 임상용 대표. 다음엔 무엇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된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